

혁신성장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선다

전북자치도, 5월 3일까지 '2024년 혁신성장 R&D+ 사업' 접수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 강화 제품 상용화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4년 혁신성장R&D+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성장 R&D+ 사업은 도내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품화 연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12대 국가전략기술·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산업 6개 분야·전북형 뉴딜 7개 분야다.

사업 추진 방식은 기업 주도 컨소시엄이나 기업 단독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주도 컨소시엄 방식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단독 방식은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역으로 주관기관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며, 참여기관은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소 및 유관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가능하다.

지원유형은 투자유치형, 자유공모형, 구매조전부, 민간투자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당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레드바이오 분야의 경우 연 3억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새로 지원되는 민간투자 연구개발 유형은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민간자금을 투자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2022년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42개사)은 118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통해 총 매출액이 26.2% 상승했으며, 170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5월 3일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

(<https://md.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tp.or.kr>) 사업안내 게시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혁신성장R&D+ 사업"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키워 전성기(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성공할 기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레드바이오 분야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북전주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하나로마트 100억 매출 달성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합원이 잘 사는 농협 만들 것”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100억 매출 달성탑 수상'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최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하나로마트 100억 매출 달성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북전주농협은 2021년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원 달성탑 수상, 2022년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원 달성탑 수상에 이어 2024년 하나로마트 100억 매출 달성탑 수상으로 산용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도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4일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바트(주최 : 대한소비자협의회 주관 : 한국소비자평가)에서 우수 마트로 선정되는 등 개점 1년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개점 1년만에 100억 매출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이 잘 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욱기기자

농협 김제시지부-금만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8일 김제 청하면 일대 영농현장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농촌공간 조성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을 위한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강효래) 회원 40여명이 함께 폐비닐 80여 마대를 수거하며 농촌 불법소각 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승운 조합장은 "우리농촌의 환경정화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금만농협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시장 만들기, 함께 참여해요”

전북중기청, 5월 3일까지 2024년 3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신청·접수

전통시장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시장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웅)은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올해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 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가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이에,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했다.

그간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D' 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

있으나, 취약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nas.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욱기기자

전북생생장터 우체국소핑, 설명절 매출액 "20억 달성"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을)은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과 2개월동안 진행했던 '설명절 전북생생장터 우체국소핑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약 20억원의 매출로 작년 동기간 대비 95% 매출액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8일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절 프로모션에서는 △우체국소핑물류 유통채널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급업체 판로 및 기획된 행사 지원 △우수 농특수산물 홍보 마케팅 및 컨

설팅 지원, 상세 페이지 및 배너 등 콘텐츠 제작 지원 △관내 입점 농가의 농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배송협조 등을 지원했다.

전북생생장터 우체국소핑 온라인 프로모션은 전북지방우정청·전북경진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운영중으로, 전북생생장터 입점기업 대상 도내 314개 기업이 참여해 4423개의 우수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설명절 뿐 아니라 봄맞이 가정의달 추석 등 시기에 맞춘 적시성 및



는 맞춤형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 전북 도내 농축어가 및 우수 기업들의 상품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농진청, 10월까지 슈퍼컴퓨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슈퍼컴퓨팅 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하고 인력 양성에 나선다.

슈퍼컴퓨팅 역량 강화 교육은 수준별로 4월과 10월에 초급, 7월에 중급, 9월에 고급 과정이 개설되며, 농촌진흥청 정보화 교육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9월에 있을 초급 과정에서는 슈퍼컴퓨터 구조 등 기본 개념과 작업 실행 방법 등 슈퍼컴퓨터 기초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 관련 대학, 연구소, 종자 기업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월에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7월에는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경험에 있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중급 과정이 열린다.

교육은 인공지능 등으로 유전체나 전사체 등 다양한 생명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이론과 실습 강의로 이뤄진다.

특히 교육생들이 슈퍼컴퓨터 환경

에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9월로 계획된 고급 과정은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환경과 병렬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국내 농업 관련 슈퍼컴퓨팅 기반 프로그램 개발 분야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대상은 리눅스 기반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연구자다.

농촌진흥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생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슈퍼컴퓨터 1호기에 이어 지난해 2호기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슈퍼컴퓨터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개설해 디지털 육종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국내 기술력 기반 농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